

[書 評]

權在善 著

훈민정음의 표기법과 음운

백 두 현

(경북대 교수)

1. 들어 가는 말

이 책의 저자인 權在善 博士는 지금까지 증세국어, 특히 훈민정음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하여 온 학자로서 손꼽히는 분이다. 훈민정음에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를 꾸준히 연구하여 이 방면에서 많은 업적을 쌓아 一家를 이루었다. 이에 비하여 이 책에 대한 서평의 임무가 부과된 필자는 훈민정음에 대하여 독립된 한편의 논문을 써 보지 못한 사람이어서 서평을 할 자격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런 까닭으로 필자가 쓰는 이 글에서는 《書評》을 한다기보다는 권박사의 저서에 피력되어 있는 독창적인 학설을 요약,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며 간간히 필자의 주관적인 느낌을 곁들이는 정도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 점 독자 제위의 혜량을 바란다.

훈민정음에 대한 연구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글들을 통하여 나오기는 하였지만 훈민정음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전체적으로 체계있게 다루어 정리한 책은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권박사의 이 저서는 훈민정음이 안고 있는 문제 중 표기법과 음운론적 측면의 연구를 종합한 책이라고 할 만하다.

이 책의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듯이 「훈민정음의 표기법과 음운」은 훈민정음에 대해 지금까지 수행되어 온 저자의 연구에서 얻어진 것 중 표기법, 개별 문자의

음가, 그리고 훈민정음에 반영된 음운체계에 대한 것을 가려 교재용으로 간추린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훈민정음에 내포된 표기법의 제 문제와 음운상의 제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다룬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책의 내용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여 필자가 쓰는 이 글에서는 전반적인 내용을 다 언급할 수 없다. 그 중 저자의 독특한 주장이나 학설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간추려 소개하기로 한다.

2. 훈민정음의 표기법

2.1 훈민정음에 설명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저자는 15세기 표기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15세기 국어 표기법에 대하여 전반적이고도 세부적인 논의가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15세기 국어 표기법에 대한 규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원칙을 설정하고, 이러한 표기법의 출현 원인에 대한 설명을 부가하고 있는 저자의 노력은 15세기의 표기법에 대한 인식을 명료하게 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시도이다. 저자의 이러한 시도는 국어 표기법 규정의 역사적 변천에 대한 인식의 체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3쪽에서 “훈민정음의 맞춤법”이라 하여 글자 합함 및 소리 이름의 규정을 명문화하여 간략하게 압축하였다. 이어서 정서법 규정을 어중 쌍초성과 섞임 겹초성적기, 이름씨의 사이소리적기 등과 같은 항목별로 그 규정을 하나씩 밝혔다. 그 중 처음중성적기 항목에서 어간 ‘쫘’의 중성이 ㅅ이나 ㅌ으로 적히기도 한 것은 ㅅ이 원래 ㅌ의 성격을 가진 파찰음이었기 때문이라고 본 점과, 이러 한 예들을 통하여 15세기의 중성 ㅅ, ㅌ, ㅍ이 각각 다른 소리로 발음되었다고 본 해석은 흥미로운 것이다. 이 해석은 중성의 음성적 실현이 표기 현상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난 것이라고 본 것이 된다.

2.2 긴소리 중성 적기 항목에서의 설명은 저자 특유의 관점을 보여 준다. 15세기 국어에서 분철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예들의 중성은 그 음가가 길었기 때문에 분철되었다는 해석은 다른 논저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

沙峴 물에오개 (용9. 49)

놀애예 일흠 미드니(용. 16)

눌히 駙馬 달애샤(용. 46)

狄人이 굴외어늘(용. 4)
 줄애山 두 놀이(용. 43)
 영의 갓爲狐皮(해례 합자)
 셋이 모덜어도(용. 103)
 石壁에 ㅁ를 올리샤(용. 48)
 나랏 말싸미 中國에 달아(훈언)

위의 낱말에 나타난 받침 ㄹ, △은 음성적으로 ‘긴 자음(長子音)’이기 때문에 후행 음절의 초성으로 표기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 해석은 음성학적 차원에서 위와 같은 분철표기를 설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몰애’ 등의 ㄹ이 긴 자음이라는 증거는 중간 두시언해 등에 출현하는 ‘몰래’ 등과 같은 중철표기례를 들고 있다. 즉 이러한 중철이 나타난 이유는 그 ㄹ이 긴 자음이기 때문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중철표기 되는 종성에는 ㄱ, ㅂ, ㅁ 등 여러 자음이 있어 이들의 중철은 ‘긴 자음’이라는 관점에서 설명되기 어렵다는 점과 △의 경우는 중철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어 더 논의되어야 할 문제점이라 여겨진다.

체언어간말 자음이 모음 조사 앞에서 분철된 현상(아바님이, 눈이, 몸애)을 ‘특수분절 현상’이라 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 원인은 관습적 의식에 바탕을 둔 토착 의식과 음성적으로 분절하여 발음하였던 데에 기인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여기서 관습적 의식이라 함은 漢文 해석에 쓰이는 토(구결)나 이두의 사용 경험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

2.3 소리덩이 적기 항목에서는 어절 단위로 구별하여 적는 현상과 사이소리 표기에 대해 논하였는데 후자에 대한 설명에 특이한 점이 있다. 관형형 어미 ‘-ㄹ’이나 의문형 어미 ‘-가’ 앞에 오는 ㄹ 뒤에 표기된 ㅇ을 사이소리의 하나로 보고 이 입성 사이소리는 말낱(語素) 간의 분별이 분명치 못한 것 사이에 들어가 이들을 분별하여 끊는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눔중싱’ 등과 같은 관형형 어미 뒤의 ㅇ과 ‘나가싫가’와 같은 의문형 어미 ‘-가’ 앞에 결합한 ㅇ을 동일하게 파악함으로써 현대국어의 ‘-ㄹ까’에 대한 통시적 이해를 가능케 해주는 면이 있다. 그러나 양자의 경우에 쓰인 ㅇ의 형태론적 환경의 차이가 커서 서로 이질적인 성격을 갖는 ㅇ임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3. 우리말의 음운(자음론)

저자는 15세기 국어 음운의 음가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일차적인 접근은 「훈민정음」의 해석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지금까지 훈민정음의 음운에 대한 여러 연구들의 방법론이 서구의 언어 음운 이론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훈민정음」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李秉根(1988)이 지적한 것처럼 올바른 방법론적 태도라고 이해된다. 한글 음가의 해명에 있어서 취해야 할 기본적 원칙은 저자가 54쪽에서 다섯 가지의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3.1 「훈민정음」의 음절 구성은 초성, 중성, 종성의 삼분법으로 되어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中聲이라는 술어에 대한 저자의 해석은 독특한 점이 있다. 일반 음성학에서의 모음은 하나의 낱소리로 한 음절을 이루지만 훈민정음에서 모음은 초성과 중성 두 요소로 나누어지며, 훈민정음의 중성은 하나의 낱소리로 아니고 한 음절도 아니다. 곧 훈민정음의 중성은 한 낱소리나 음절의 한 요소라는 것이 저자의 해석이다. 이 해석은 61쪽에 간략한 도해로써 그 차이를 표현해 놓았으니 독자의 참고를 바란다.

또한 훈민정음의 술어 해석을 통하여 초성은 “피어 움직임”, 중성은 “이어 접함”, 종성은 “그쳐 정함”이라는 음성학적 과정으로 해석하고 각각을 압축하여 “피어남, 이음, 그침”이라는 술어를 만든 점도 관심을 끈다.

3.2 초성 ‘ㅇ’의 음가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으나 저자는 이 책에서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였다. 저자는 초성의 ‘ㅇ’을 모음으로 시작되는 낱말에 나타나는 것으로(아들, 어미), 이 때의 ‘ㅇ’을 ‘숨 불어 냄’(出氣)의 기호로 보았다. 음성학적으로 본다면 모음의 前半 調音 곧, 聲門에서 공기가 흐르는 과정을 표상하는 “聲門 流音”을 가리킨다고 설명하였다. 저자의 이 견해는 초성의 ‘ㅇ’을 음가가 없다고 보는 학설에 가까운 것이지만 이런 해석에 도달한 과정은 독창적인 것이라 여겨진다.

3.3 치음에 속하는 ㅅ과 ㅆ의 음가에 대한 저자의 파악도 특이한 점이 있다. ㅅ의 음가가 현대 표준어의 그것과 같지 않고 최세진의 한자음 설명에 근거하여

치두음과 정치음의 중간 소리라고 보았으며 구개성이 있는 前硬口蓋音이라 보았다. ㅈ도 역시 치음이 아니라 전경구개음이라고 파악하였으며 이에 대한 논증으로 15세기 국어에서 '진짓-진딧'과 같이 원래의 ㅈ이 ㅊ으로 변화한 예를 들고 있다. 저자는 이런 현상이 ㅈ이 구개음이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3.4 반치음 '△'의 음가에 대한 저자의 견해도 통설과 매우 다르다. '△'의 음가는 무성음 [G]이며 무성음 ㅅ의 유성음 짝이 아니고 ㅅ에 대립되는 독립 음소로 마찰음이며 ㅅ보다 간격이 큰 소리라고 하였다. 유성음 사이라는 분포 환경을 가지고 있는 점은 'ㅅ'보다 간격이 큰 소리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의 변화에는 강화와 약화라는 두 가지 방향의 작용이 있다고 하여, '손소, 몸소' 등이 '손조, 몸조'로 변한 것은 △의 특수한 변화로 이해되며 이것은 강화(특히 작아짐)에 해당한다. 모음 'ㅣ' 앞의 △이 약화되면 반모음 ㅈ로 변화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저자의 견해가 학계에 수용이 되기 위해서는 좀더 설득력 있는 논증이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ㅃ의 음가는 유성음 사이에서는 β로, 무성음 사이에서는 ϕ로 실현된 음이라고 하여 두 가지로 파악한 점이 다른 학설과 구별되는 것이다.

3.5 저자는 병서에 대한 음가의 고증에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고 여러가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독특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연서는 겹글자이지만 홀소리이며, 병서는 「훈민정음」에서 소리의 성격이나 음가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으며, 당시에 특별한 성격 규정이 없는 것이어서 글자대로 소리가 난 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병서의 음가를 논하였다. 저자가 고안한 술어인 쌍초성(각자병서)과 섞임 겹초성의 음가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살펴 보기로 한다.

"쌍초성과 섞임겹초성의 병서가 그 표기된 글자대로 소리날 것으로 이해되는 사실과 우리말 소리의 음절 짜임의 특수성으로 보아 여러 낱소리(多音群)가 소리날 수 없다는 사실은 초성의 이해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한다." 라고 하면서 이들의 음가에 대해 접근하였다. 결론만으로 본다면, 쌍초성은 경음과는 무관한 소리이며 長音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들의 개별 음가는 어중에서만 실현되는 ㅂ은 gg로, ㄴ은 nn으로, ㄷ은 dd로, ㅃ은 bb로, ㅈ은 dzdz으로, ㅇㅇ은 어중에서 겹게 숨 붙어내는 초성이라고 하였다. 다만 ㅅㅅ ㅎㅎ은 장음 표시의 :를 이용하여 각각 s:, C:로 나타내고 있다. 저자는 이들 어중 쌍초성의 경우 결합 가능한

중성의 수를 모두 고려하여 다루었다.

특히 어중에서만 나타나는 ‘ㅇㅇ’은 앞 음절이 ‘ㅣ’로 끝나는 다음의 ‘이’음절에서 중성이 준 형태의 구성으로 이해하면서, ‘ㅇㅇ’음의 음가에 대해서는 초성의 ㅇ과 마찬가지로 ‘어중에서 길게 숨 불어내는 소리’로 기술하였다.

섞임 겹초성의 경우도 앞 뒤에 놓이는 자음의 결합 관계를 도표로 나타내면서 그 구조상의 특성을 밝히려 하였다. 합용병서에 대한 저자의 논의는 기존하는 여러 학설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각각의 날소리가 발음되었다고 보는 학설과는 유사하지만 그 음가를 파악하는 방법이 현저히 다르다. 어두에 다른 자음과 합용되어 쓰이는 ㅅ이나 ㅁ은 다른 소리와 함께 낼 수 있는 동시 조음이 가능한 소리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ㅅ계 합용병서에 쓰이는 ㅅ은 그 병서의 구개화음을 표시해 주며, ㅁ계 합용병서의 ㅁ은 그 병서의 脣化音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즉 ㅅ은 ㄱ의 구개화음, ㅁ은 ㄴ의 구개화음, ㅁ은 ㄴ의 순화음, ㅁ은 ㅅ의 순화음이라는 것이다.

또한, ‘ㅁ계 합용병서’는 이들 두 요소의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음으로 이해하는 독특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저자의 견해를 따르다면 훈민정음의 창제자는 이른바 음성적 변이음을 표기하기 위한 별도의 문자를 만들었다는 것이 된다. 그런데 중성을 8자로 제한한 용법에서 알 수 있듯이 초성의 ㄱ, ㅁ 등과 중성의 ㄱ, ㅁ 등이 음성적으로 다른 변이음임에도 불구하고 초성과 구별하여 중성을 위한 ㄱ, ㅁ 등을 위한 문자를 따로 만들지 않았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저자는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대국어의 소리에 구개화음이 이루어진 음성과 순화음이 이루어진 소리가 있음을 그 증거로 들고 있다. 또한 저자는 겹초성의 음가에 대한 통시적 이해를 위하여 삼국사기 및 삼국유사의 고유명사 표기, 계림유사와 조선관역어의 국어 표기례 등을 통하여 그 음가에 대하여 통시적인 관점에서의 분석을 더하고 있다.

3.6 겹중성의 음가를 다루는 곳에서 주목되는 점은 ㅅ이 중성으로 쓰일 때 초성의 음가 ts가 중성에서는 st로 도치된다고 한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ㅋ, ㅌ 등의 유기음도 중성에서는 음성도치에 의해 내파화가 일어난다고 설명하였다.

3.7 긴중성(長終聲)은 소리를 길게 낼 수 있는 유성음 중성으로 ‘ㅇ, ㄴ, ㄹ,

ㅁ, △' 등으로 짧은 종성과는 음성적으로 차이가 났으며, 단지 음절 구분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는 데에 대한 저자의 자세한 논의도 이 현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보여 준다. 이어서 종성의 변화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는데 변화의 원인으로는 음절말 위치에서의 자음의 내파화와 관련지어 설명한 방법은 정당한 것으로 이해된다.

4. 우리말의 음운(모음론)

4.1 '•'의 음가를 음성기호 ㄷ(ㅡ와 ㅓ의 중간음을 표상한 기호로 쓴 듯하다)으로 나타내고 중설적 성격을 띤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그 증거로 들고 있는 것은 '•'가 'ㅡ'나 'ㅓ'로 변환 예들을 들었다. 또한 '•'는 제2기의 변화를 겪는 단계에서는 그 음가를 ㅓ로 추정하여 시기별로 이 음운의 음가가 다른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와 같은 중설 자리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후설 쪽으로 더 물러난 위치에 있다고 한 점은 온당한 인식이라고 생각된다. '•'의 음가에 대한 이런 학설도 후설모음으로만 파악한 종전의 견해에서 진일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를 중설로 파악하고 232쪽에 제시된 사각도에 그린다면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음성기호인 ㅓ로 표시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한다.¹⁾

권박사는 15세기의 훈증성체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ㅣ	ㅡ	ㅓ
ㅓ	•	ㅓ
	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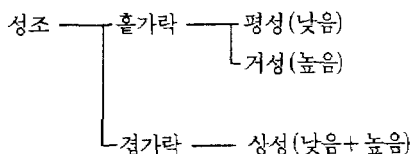
이런 체계를 바탕으로 '•'의 1, 2단계 변화에 따른 독특한 모음추이설을 폈다(240쪽 참조).

1) ㅓ는 영국 영어의 bird, fern, purse의 모음에서 실현된다. 그런데 '•'는 이 모음보다 약간 더 후설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4.2 겹글자 중성(외, 위, 와, 워 등)의 음가에 대한 설명에서도 저자는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학설을 세우고 있다. 특히 ‘외’와 ‘위’의 음가를 각각 *yi*와 *wi*로 설정한 점이 특이하다. 이들의 *y*와 *w*는 ㅍ의 변화에서 생겨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겹중성(이중모음)은 겹소리였으며 표기된 글자로 볼 때 음소적 관념상 ‘와(oa), 워(ua), 애(ai), 외(oi)……’ 등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나, 음성적 음가는 ‘ㅣ’계는 *j*로, ‘ㄱ’은 *u*로, ‘ㄷ’은 *w*로 간주하였다.

4.3 옛말의 음소체계를 종합한 270쪽 이하에서 초성, 중성, 중성의 체계를 일목요연하게 그림으로 나타낸 방법은 음소들 간의 상관관계를 잘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홀중성체계의 대립관계를 파악한 저자의 견해는 매우 인상적이다. 279쪽에 설정된 평면적 구조도는 一, ㅍ, ㅌ, ㅊ가 세로로 놓인 것으로서 송민 교수가 생각했던 체계와 비슷한 점이 있다. 그러나 저자는 이 구조도로는 15세기의 모음조화를 이해할 수 없으므로 중성의 대립관계를 빗긴 나래 대립(斜翼對立)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권박사가 창안한 이 술어는 15세기 모음의 대립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것이라고 생각된다. 나래 대립에 의해 15세기의 모음조화 및 모음들간의 相關을 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4.4 15세기 국어의 성조에 대한 저자의 이해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자는 15세기의 성조소를 3개로 보는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는 훈민정음을 이용한 한자음 표기에 대하여 자세히 밝혀 놓았다.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이 올바른 한자음의 표기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 훈민정음 연구에서 한자음 표기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 하겠다.

5. 마무리

글 머리에서 언급했듯이 권박사의 이 책은 훈민정음의 표기법, 음가, 음운체계, 한자음 표기 등의 주요 문제를 망라하여 이 방면의 연구를 집대성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훈민정음에 관한 개별적 주제를 산발적으로 다루어 온 지금까지의 일반적 연구 경향을 볼 때 이 책과 같은 종합적 연구에 의한 단행본의 출판은 이 방면의 연구자들에게 좋은 참고 자료를 제공한 것이기도 하다. 나아가 15세기 국어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그 깊이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훈민정음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에 진일보의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생각된다. 이 책에서 피력된 저자의 독창적 학설들은 앞으로의 연구자들에게 충분히 검토되고 그 이론적 타당성이 검증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